

#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성: Q 방법론적 연구

하 은 호\* · 이 영 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소규모 형태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여 5,242개 시설에서 14만8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여러 유형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시설 수가 가장 많고 이용인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 1-2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그에 준한 상태의 노인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무료·실비·유료 노인요양시설로 세분되어 주로 빈곤계층 또는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잔재하고 있어 아직까지 일부 노인들로

하여금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기도 하다(Kim, 2016).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위생상태가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한 약물처방과 신체구속이 행해지는 등 시설 입소자의 평안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돌봄이 제공되기도 하였다(French & Mosher-Ashley, 2000).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재정비와 함께 공격 개입이 강화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기 평가와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인해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보건의료비의 지출 감소로 가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Yi, 2015).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노인층의 평균연령이 증가하면서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 유병상태의 노인을 가족 내에서 부양하기 힘든 상황들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내포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입소노인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가정과 같은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소자가 갖는 질환 및 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http://orcid.org/0000-0002-6053-582X>)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ymlee@cup.ac.kr](mailto:ymlee@cup.ac.kr)) (<http://orcid.org/0000-0001-7969-9683>)

• Received: 25 March 2018 • Revised: 5 April 2019 • Accepted: 23 April 201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Young Mi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74 Oryundae-ro, Geumjeong-gu, Busan, Korea

Tel: 82-51-510-0833 Fax: 82-51-510-0838 E-mail: [ymlee@cup.ac.kr](mailto:ymlee@cup.ac.kr)

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인력의 수요와 역할기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과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간호사의 배출이 요구되며, 간호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간호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노인간호에 대한 관심을 진작하고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은 총체적 시각에서 노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비간호학과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Kwon, Noh, & Jang, 2013)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이거나(King, Roberts, & Bowers, 2013; Park & Lim, 2016; Zverev, 2013) 중립적인 태도(Jeong, 2012; Lee, 2014) 등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상당 수 입소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실습과정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돌봄에 대해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 배회, 공격행동, 억제되지 않은 성행동 등의 정신행동증상을 보이는 입소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유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O'Connell, Guse, Greenslade, Osterreicher, & Jensen, 2017). Kong (2016)은 시설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급성 스트레스 증상 발현', '내적인 갈등', '대처요령의 터득', '적응 되어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Cho & Kim, 2016; Jeong, 2012; Lee, 2014; Park & Lim, 2016) 연구들과 시설노인의 삶을 확인한 Kim과 Lim (2003)의 연구 외에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Kim과 Lim (2003)의 연구에서는 시설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고 연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간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인간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내용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특정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태도 등을 의미하는 인간의 주관성은 객관적인 측정에 의한 자료로는 인간의 내재된 심리상태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인간의 행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Q방법론의 적용은 과학적이면서도 깊고 통찰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적합한 연구기법이라 할 수 있다(Wolf,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간호대학생 각 개인의 주관성과 그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노인간호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성을 파악한 후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견해 등과 같은 주관적 영역을 파악하고 각 인식유형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 2. 연구 방법

일반적으로 Q 방법론적 연구는 Q 모집단의 구성, Q 표본의 선정, P 표본의 구성, Q 표본의 분류, 유형 추출 및 유형 명명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Figure 1).

- 1) Q 모집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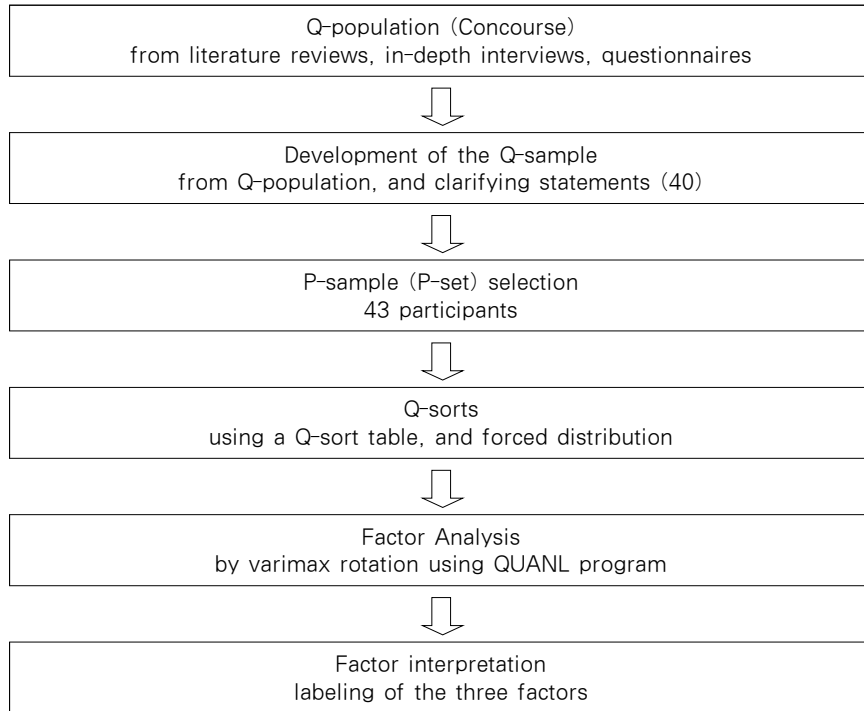


Figure 1. The Practical Steps in Q-methodology

Q 모집단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주로 문헌연구 또는 대상자 면담 등 기타 다양한 자료의 활용으로 수집할 수 있으나 문헌고찰과 면담에 크게 의존한다(Akhtar-Danesh, Baumann, & Cordingley, 2003;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택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문헌고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검토, 개방형 질문지 제작, 개인별 심층면담의 세 과정을 거쳤다. 문헌고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검토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정의, 노인요양시설의 장점과 단점, 노인요양시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제작한 후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동연구자와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에 응한 간호대학생에게 개방형의 질문지를 배부한 후 방문 수거하였다. 개방형 질문지 응답을 토대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J대학 간호대학생 17명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1인당 30~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 91개의 Q 모집단을 도출하였다.

### 2) Q 표본 구성

너무 많은 Q 표본 항목 수는 Q 표본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므로 40-60개가 보편적이다(Kim, 2008). Q 표본을 도출하기 위해 Q 방법론 전문가 2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전담조사자 1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2인, 수간호사 2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결성하여 91개의 진술문(Q 모집단)을 메일로 보내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유선 회의와 1회의 모임을 거쳐 모호한 표현과 중복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함께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0개의 진술문을 Q 표본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 3) P 표본 선정

Q 방법론은 개인 내면의 주관성을 강조하므로 대상

자 수인 P 표본이 많아지면 요인분석 시 결과가 왜곡되어 나올 수 있고 개인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소 표본 원칙을 따르며 이를 근거로 50명 내외가 적당하다(Kim, 2008). 본 연구의 P 표본은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3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4) Q 표본 분류

Q 표본 분류는 P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Q 분포표의 정규분포 안에 도출된 진술문을 분류하여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Akhtar-Danesh, Baumann, & Cordingley, 2003), 보통 Q 표본수가 40개 이하인 경우 9점 척도인 -4에서 +4까지의 범위가 안전하다(Kim, 2008).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Q 표본 분류 설명서를 미리 배부하여 Q 표본 분류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준비된 40개의 진술문에 대해 긍정, 부정, 중립의 3개 영역으로 Q 표본을 분류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적극 긍정(+4)에는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진술문을 2개, 적극 부정(-4)에는 자신의 견해와 가장 불일치하는 진술문 2개를 배치하여 좌우 양극단에서부터 가운데 중립을 향하여 +3에 3개, +2에 5개, +1에 6개, -3에 3개, -2에 5개, -1에 6개가 놓이도록 하였고 최종 중립인 0에는 8개를 강제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배치된 진술문이 +4이면 9점을 배정하고 그 다음 8, 7, 6의 순으로 하였고, 중립에는 5점, -4이면 1점 그 다음 순차적으로 2, 3, 4 점의 순으로 변환 점수(computational score)를 배정하였다(Figure 2). Q 표본 분류가 끝난 후 Q 분포표 양 끝에 놓인 각각 2개의 진술문을 +4와 -4에 강제 분포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에 후속 진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도출된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결과 해석에 유용하게 인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Q 표본 분류 과정은 1인당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Q 모집단 선정을 위해 사전에 훈련받은 연구원이 5개 대학 간호대학생들을 방문하

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구두로 허락을 받아 개방형 질문지를 배포한 후 직접 수거하였으며 이 과정은 2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한 후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에 한해 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과 실습경험이 있는 J 대학 간호대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Q 표본 분류 자료 수집은 3개 대학 43명을 3개 팀으로 나누어 하계방학 동안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Q 표본 분류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실과 강의실 등을 이용하였다.

#### 5.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Q 방법론에서 test-retest (sort-resort)는 최종 도출된 Q 표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1~2주일 간격을 두고 실시하며 2회의 상관관계 계수(r)의 평균이 0.7~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간주한다(Akhtar-Danesh, Baumann, & Cordingley, 2003;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40개 진술문(Q 표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7명의 지원자가 test (sort)에 참가한 뒤 2주 후 retest (resort)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r=0.7$  ( $p=0.01$ )로 나타났다.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타당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안면타당도, Q 표본 분류 등 3단계는 Q 방법론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Akhtar-Danesh, Baumann, & Cordingley, 2003).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고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안면 타당도는 Q 표본 선정 시 결정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진술문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40개의 진술문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Q 표본 분류를 통한 타당도 검증은 test-retest를 위해 선정된 7인의 지원자들에게 의한 pilot-test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진술문의 이해 정도, 문법, 가독성 등을 점검하였다.

####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1044297-HR-201706-018-01)을 받은 후 시행하

Strongly Disagree			Neutral			Strongly Agree		
-4(1)	-3(2)	-2(3)	-1(4)	0(5)	1(6)	2(7)	3(8)	4(9)
2	4	5	6	8	6	5	4	2
10	36	17	34	40	19	25	27	22
8	16	14	29	39	35	24	28	32
	3	9	20	38	33	31	37	
		7	15	26	30	18		
		1	2	23	13	4		
			6	21	11			
				12				
				5				

Figure 2. Sample of Completed Q-Sort Table

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목적, 방법, 심층면담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면담이나 질문지 작성 도중이라도 참여자 의사에 따라 철회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논문 출판 이후 파쇄기를 이용하여 자료가 폐기 되도록 특별 관리할 예정임도 설명하였다.

### 7. 자료 분석

연구 자료의 분석은 QUANL Program을 이용하였다. QUANL 방법의 특징은 연구자가 연구주체에 관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주체에 대한 특정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유용하며, 다양한 유형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m, 2008). 연구대상자의 효과적인 유형 분류를 위해 varimax를 이용한 비이론적 회전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Eigen value는 1.0 이상을 채택하였다. 적재된 각 진술문의 값은 Z-score 1.0 이상을 의미 있는 값(Kim, 2008)으로 선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Q 유형의 형성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이들 유형은 전체 변량의 39.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I 유형이 20.4%, 제II유형이 11.4%, 제III유형이 7.5%로 제 I 유형이 간호대학생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고유치는 제 I 유형이 8.78, 제II유형이 4.89, 제 III유형이 3.21로 나타났다 (Table 1).

### 2. 유형 분석

#### 1) 제 I 유형 : 노인요양시설 이용적인 측면-망설임 견해

제 I 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20명으로 연령은 21~41세, 평균 23(±4.40)세였으며, 여학생이 16명(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명 중 12명(60.0%)이 종교가 없었고, 17명(85.0%)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으나 16명(80.0%)은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없었다. 13명(65.0%)이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15명(75.0%)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20명(100%) 모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14명(70.0%)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00)

Q-Statement	Z-Score		
	Type I (n=20)	Type II (n=14)	Type III (n=9)
1. It is a place for old people who can't be cared at home.	0.32	-0.48	0.50
2. It provides housing, welfare and hospice for old people who are uncomfortable in daily life.	1.59	0.14	1.22
3. It is a place for old people with dementia.	-1.23	-1.63	-0.27
4. It provides conservative treatment than active treatment.	1.32	0.08	1.38
5. It can quickly cope with the emergency situation of old people.	-0.82	-0.12	1.27
6. It is a safe place for old people with dementia.	-1.13	-1.39	1.47
7. It can decrease family troubles by reducing caregiving burden of family members.	-1.29	-0.97	0.46
8. It can improve quality of life of old people.	-1.19	-1.71	1.37
9. It can prevent complications and worsening of disease by steady health care.	0.20	-0.96	0.77
10. It is possible for personalized care services because of skilled caregivers	-0.05	-1.71	-0.25
11. Care services vary greatly depending on NH's facility level and size.	1.85	-0.34	-0.05
12. There is a limit to caring with all sincerity as a family.	1.22	-0.56	-0.75
13. Service quality is poor because few caregivers look after a large number of old people.	0.54	0.40	-0.30
14. Abuse, neglect, and accidents (falls, fractures, asphyxia, aspiration, etc.) are more common.	-0.08	-0.45	-1.35
15. Old people's remaining capacity can be decreased due to caregivers' excessive care. <sup>†</sup>	-1.07	-1.07	-1.43
16. NH is unsanitary and disorganized.	-0.98	-1.59	-1.11
17. It is economically burdensome because of the cost of NH*.	1.18	-0.24	0.09
18. It is a place that not want to send my parents.	1.37	0.02	-1.59
19. It seems to be there is no privacy and isolated from society.	0.67	-0.90	-1.93
20. Leave their parents at a NH*, families may not care about their parents at all.	0.62	-0.61	-0.64
21. The regulations on admission to NH should be relaxed so that old people use it easily.	0.22	-0.28	-0.05
22. Development of diverse programs for rehabilitation and health promotion are needed.	1.71	1.08	0.76
23. Public relations strategies for old people in blind areas are needed.	0.07	0.05	0.89
24. Thorough infection control is necessary.	0.96	0.50	0.62
25. The daily life of the old people in the NH should be shared with the family.	1.08	0.65	0.71
26. A thorough financial supervision of the NH is necessary.	0.36	0.72	0.34
27. Welfare of caregivers and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is necessary.	0.14	1.29	1.09
28. A system should be organized so that families trust NH* with their parents.	1.05	1.84	0.67
29. The economic burden of using NH should be reduced by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0.41	0.52	1.63
30. Public needs for NH should be reflected through regular surveys.	-0.93	-0.12	0.31
31. There is a need for job training and personality education of caregivers.	0.27	2.12	0.63
32. It is urgent to keep skilled caregivers.	-0.46	1.44	0.06
33. Changes in social prejudice and negative perceptions of NH are needed.	-0.48	0.50	-0.07
34. The service quality should be improved introducing an excellent institution reward system.	-0.83	0.14	-0.37
35. Standardized operation guidelines for NH should be prepared.	-0.31	1.19	0.34
36.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NH that separates people with dementia and without dementia.	-1.35	-1.07	-1.92
37. Legal punishment should be made in the case of unauthorized operation.	-0.40	1.65	-1.51
38. Benchmarking of NH operations in other countries is needed.	-1.36	0.20	-1.73
39. The restraint of imprudent NH organizations is needed.	-1.76	0.39	-0.32
40. An unexpected visit by the government is necessary.	-1.43	1.28	-0.96

\*NH=Nursing home; †=Consensus statement of 3 Types

되었다(Table 2).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Z-score 1.0 이상)은 Q 2, 4, 11, 12, 17, 18, 22, 25, 28이었고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Z-score -1.0 이하)은 Q 3, 6, 7, 8, 15, 36, 38, 39, 40 등 이었다(Table 1). 이러한 제 I 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의 후속 진술이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설에 보호자가 없으므로 노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가족들과 격리되어 힘들게 살다보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것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자식 된 도리로 요양시설에 모신다는 것이 죄스럽고 남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 나도 발 뻗고 편하게 지내지 못 할 것 같다. 요양시설 수준도 천차만별이라 믿을 수도 없다.”

### 2) 제 II 유형 : 노인요양시설 운영적 측면-혁신적 견해

제 II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모두 14명으로 연령은 21~23세, 평균 21.5(±0.65)세로 여학생이 13명(92.8%)을 차지하였다. 14명중 8명(57.1%)이 종교가 없었고, 12명(85.7%)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14명(100%) 모두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없었다. 9명(64.3%)이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14명(100%) 모두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9명(64.3%)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Z-score 1.0 이상)은 Q 22, 27, 28, 31, 32, 35, 37, 40 등이었고,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Z-score -1.0 이하)은 Q 3, 6, 8, 10, 15, 16, 36 등이었다(Table 1). 이러한 제 II 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의 후속 진술이다.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뽑아야 한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단순한 인력을 대충 교육시켜서 중구난방으로 뽑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치매노인

과 가족이다.”

“정부가 나서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고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치매노인에게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노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때마다 정부에 민원을 넣고 싶었고 힘이 있다면 법으로 처벌하고 싶었다.”

### 3) 제 III 유형 : 노인요양시설 입소적인 측면-건설적 견해

제 III 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9명으로 연령은 21~39세, 평균 25.1(±5.41)세로, 5명(55.6%)이 여학생이었다. 6명(66.7%)은 종교가 있었고, 8명(88.9%)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으나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은 없었다. 6명(66.7%)이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7명(77.7%)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9명(100%) 모두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6명(66.7%)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Z-score 1.0 이상)은 Q 2, 4, 5, 6, 8, 27, 29 등이었고,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Z-score -1.0 이하)은 Q 14, 15, 16, 18, 19, 36, 37, 38 등이었다(Table 1). 이러한 제 III 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의 후속 진술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노인에게 안전한 곳이다. 가족이 모시면 좋지만 직장도 다녀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치매노인을 돌보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시설에 모셔 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서로 편하다. 같이 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굉장히 뿌듯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옆에서 돌보니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 4) 3개 유형의 공통적 견해(Consensus)

3개 유형의 공통적 견해는 Q 15로 ‘과도한 돌봄으로

Table 2. Types, Eigenvalu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 (N=43)

Variable	Type I (n=20)	Type II (n=14)	Type III (n=9)
Eigenvalue (Variance, %)	8.78 (20.4)	4.89 (11.4)	3.21 (7.5)
Gender (%)			
Male	4 (20.0)	1 ( 7.2)	4 (44.4)
Female	16 (80.0)	13 (92.8)	5 (55.6)
Age (yr)			
Range	21~41	21~23	21~39
M±SD	23±4.40	21.50±0.65	25.10±5.41
Religion (%)			
Yes	8 (40.0)	6 (42.9)	3 (33.3)
No	12 (60.0)	8 (57.1)	6 (66.7)
Live with parents (%)			
Yes	17 (85.0)	12 (85.7)	8 (88.9)
No	3 (15.0)	2 (14.3)	1 (11.1)
Experience of living with GP* (%)			
Yes	4 (20.0)	0 ( 0)	1 (11.1)
No	16 (80.0)	14 (100)	8 (88.9)
Experience of elderly education (%)			
Yes	13 (65.0)	9 (64.3)	6 (66.7)
No	7 (35.0)	5 (35.7)	3 (33.3)
Awareness of NH† (%)			
Yes	5 (25.0)	5 (35.7)	2 (22.3)
No	15 (75.0)	9 (64.3)	7 (77.7)
The need for NH† (%)			
Yes	20 (100)	14(100)	9(100)
No	0 ( 0)	0 ( 0)	0 ( 0)
Want to work in NH† (%)			
Yes	6 (30.0)	5 (35.7)	6 (66.7)
No	14 (70.0)	9 (64.3)	3 (33.3)

\*NH=Nursing home; †GP=Grandparents

인해 잔존능력의 저하 초래' 항목에 모두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IV. 논 의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과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대상자가 입소하는 시설이다. 본 연구는 매년 입소자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성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성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이용적임 측면-망설임 견해', '노인요양시설 운영적임 측면-혁신적 견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적임 측면-건설적 견해'로 명명하였다.

제 I 유형인 '노인요양시설 이용적임 측면-망설임 견해'를 보인 대상자들은 시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하기에는 흡족하지 않거나 꺼려지는 문제들이 있어 시설이용 결정에 있어서 소극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는 Choi (2010)의 연구에서 노인의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개인 취향을 존중받지 못하는 집단생활, 규칙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 상태에 따른 개별적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결과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시설수준과 규모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가 크다' 항목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인요양



시설의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입소노인 중심이 아닌 운영자 중심의 획일화되고 낮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기를 지낸 학생들이므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재해 있을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인 돌봄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의료적인 문제가 내포된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므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Kwon, Noh, & Jang, 2013),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질병의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질병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양양을 목적으로 입소 노인들이 여생을 거주하는 곳이므로 가정과 같은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지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노인들의 안락한 거주공간으로 재인식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대상자에게는 거주자인 노인의 삶을 고려하여 인간 존엄성의 실행, 양질의 간호 제공, 자기 결정의 기회 인정, 관계형성 지지와 같은 노인중심 서비스(Choi, Lim, & Lee, 2011)를 강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Nolet 등(2015)은 간호대학과 요양시설이 12주간의 장기요양 인턴십 임상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후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노인간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검증하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긍정적 이미지의 노인 사례와 거주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노인시설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도 제 1 유형 대상자들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II 유형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적 측면-혁신적 견해'에 속한 대상자들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들의 특성은 후속 진술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통해 시설의 질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유사 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가족 수발자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요양시설의 의미를 탐색

하고자 한 Lee, Lee와 Hwang (2017)이 '체계적인 가치기반에 의한 운영',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편안한 노후를 위한 안식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4가지 주제와 그에 따른 하위 주제로 '체계화된 서비스 매뉴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 등을 도출한 결과와 유사하다. Choi, Lim과 Lee (2011)는 시설 거주노인들로 하여금 규정된 일정에 따라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기존의 통제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의 개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주자 중심의 돌봄 제공으로 거주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문화로 변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의 마련과 함께 노인시설 인력양성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시설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역량강화 항목에서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였는데, 다른 유형의 대상자들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고 노인교육의 이수 정도가 가장 적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없었던 대상자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 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학을 비롯한 보건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 노인시설에서 노인들과 함께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차별의식, 돌봄 행위 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연구들(Augustin & Freshman, 2016; Neils-Strunjas et al., 2018; Stratton et al., 2015)은 유용한 교육적 사례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다양한 간호요구와 양질의 맞춤형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습득과 간호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이 유형의 대상자를 위한 교육전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교육적 접근법으로 전공교과와 노인간호 간의 연계교육, 지역사회 노인들의 멘토 역할, 시청각 매체 활용, 자기성찰 등(Yeom, 2016) 각 대학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III 유형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적인 측면-건설적 견해'에 속한 대상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다. 또한 노인이 당면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노인과 가족을 위한 최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융통

성을 갖는다. Kim과 Lim (2003)이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유형화하여 노인시설을 회로 애락이 존재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낙관적 긍정형', 시설노인들이 늙고 병든 몸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끼므로 따뜻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적 고통감내형', 그리고 신체적 측면보다 심리적인 고통이 따르는 시설노인에게 연민을 느끼는 '심리적 공감형'으로 분류하여 지나친 부정적 태도보다는 수용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 제 III유형의 대상자들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나 노인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고,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향이 월등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Hagestad와 Uhlenberg (2005)는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3세대 가정이 드물어진 현대의 가족 구조에서 노인과의 교류 기회가 없을 때 노인은 허약하고 인지력이 떨어진 죽음에 근접한 계층이라는 선입견으로 그릇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는 가족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다른 연령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연령으로 인한 세대 차별을 완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므로 세대 간에 상호교류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관련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돌봄 능력이나 자신감이 높고,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학생들에서 노인 돌봄 의향이 높았음을 보고한 연구(Darling, Sendir, Atav, & Buyukyilmaz, 2018; Zhang, Liu, Zhang, Meng, & Liu, 2016)는 노인교육 및 실습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제 III유형의 대상자들에게는 임상술기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감능력, 노인관련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시설의 지도자와 감독자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영역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노인간호 역량과 직업적 성취감이 높은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과도하게 돌봄으로 인해 잔존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대부분이 만성질환 및 기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되고 복합질환을 보유하며 골다공증, 요통 등의 근골격계 문제를 갖는 허약상태의 노인이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Lee, Cho, &

Jang, 2009). 또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8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치매, 골절 등의 질병상태일 경우 재가서비스에서 시설 입소로 전환하는 결정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Han, Hwang, & Lee, 2016). 중증 노인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소노인이 갖는 의료적 문제에 대해 상근 의사가 아닌 촉탁의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 하에서 불필요한 과보호보다 입소노인의 다양한 기능수준을 평가하고 개별화된 접근을 통한 잔존기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간호인력에 대한 적정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노인과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간호대학 재학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전원이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간호 교육 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노인간호 실무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고(Zhang et al., 2016), 각 현장에 적합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인간호 강의내용, 적절한 현장실습기관 선정, 실습지도자의 역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생각, 느낌, 경험, 태도 등과 같은 주관성을 탐색하고자 연구자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관점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적 인식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향후 노인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개발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인간호 분야에서 차별성을 갖춘 전문 간호인력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유형화하여 대학에서의 노인간호 교육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Q방법론적 접근으로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로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성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적인 측면-망설임 견

해', '노인요양시설 운영적 측면-혁신적 견해',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적인 측면-건설적 견해'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노인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의선정에 의한 일부 간호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개인적 요인과 교육환경적 요인 등에 의한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Akhtar-Danesh N, Baumann A, & Cordingley L. (2003). Q-methodology in nursing research: A promising method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Western Journal of Nursing*, 30(6), 759-773.  
<https://doi.org/10.1177/0193945907312979>
- Augustin, F., & Freshman, B. (2016). The effects of service-learning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37(2), 123-144.  
<https://doi.org/10.1080/02701960.2015.1079705>
- Cho, H. H., & Kim, N. H. (2016). Factors affecting the behavior treating the elderl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7), 79-88.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7.08>
- Choi, H. K. (2010).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families and care workers on elder care services in nursing facilities. *Family and Culture*, 22(4), 1-31.  
<http://dx.doi.org/10.21478/family.22.4.201012.001>
- Choi, J. S., Lim, J. S., & Lee, M. H.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culture change of nursing homes in South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4, 61-84.
- Darling, R., Sendir, M., Atav, S., & Buyukyilmaz, F. (2018).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d the elderly: An assessment of attitudes in a Turkish university.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39(3), 283-294.  
<https://doi.org/10.1080/02701960.2017.1311883>
- French, E. M., & Mosher-Ashley, P. M. (2000).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Educational gerontology*, 26(6), 583-603.  
<https://doi.org/10.1080/03601270050133919>
- Hagestad, G. O., & Uhlenberg, P. (2005). The social separation of old and young: A root of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43-360.  
<https://doi.org/10.1111/j.1540-4560.2005.00409.x>
- Han, E. J., Hwang, R. I., & Lee, J. S. (2016). Factors related to nursing home institutionalization of elderly using home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3), 512-525.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3.512>
- Jeong, H. S. (2012).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4), 2025-2037.
- Kim, H. K.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M. A., & Lim, S. H. (2003).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life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7(1), 43-54.

- Kim, S. Y. (2016). Elderly Koreans' perception of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7(3), 242-253.  
<http://dx.doi.org/10.12799/jkachn.2016.27.3.242>
- King, B. J., Roberts, T. J., & Bowers, B. J. (2013). Nursing student attitudes toward and preferences for working with older adult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34(3), 272-291.  
<https://doi.org/10.1080/02701960.2012.718012>
- Kong, E. S. (201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of behavioral symptom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4(3), 99-118.
- Kwon, M. S., Noh, G. Y., & Jang, J. H. (2013). University student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633 - 646.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3.633>
- Lee, J. S., Lee, Y. M., & Hwang, R. I. (2017). Evaluation of service quality in aged care facilities : A focus group stud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1), 19-33.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1.19>
- Lee, S. H. (2014).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6(1), 18-26.
- Lee, T. W., Cho, S. Y., & Jang, Y. K. (2009). Predictors of nursing service need for nursing homes resi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1), 95-106.  
<https://doi.org/10.4040/jkan.2009.39.1.95>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ople 2018 (11-1352000-000002-10). Sejong: Korea.
- Neils-Strunjas, J., Crandall, K. J., Shackelford, J., Dispennette, K., Stevens, S. L., & Glascock, A. (2018). Students report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following an interprofessional service-learning course.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12, 1-12.  
<https://doi.org/10.1080/02701960.2018.1479262>
- Nolet, K., Roberts, T., Gilmore-Bykovskiy, A., Roiland, R., Gullickson, C., Ryther, B., & Bowers, B. J. (2015). Preparing tomorrow's nursing home nurses: The wisconsin long term care clinical scholars program.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36(4), 396 - 415.  
<https://doi:10.1080/02701960.2014.954040>
- O'Connell, B., Guse, L., Greenslade, L., Osterreicher, A., & Jensen, F. (2017). Undergraduate placements in geriatric care facilities: Students gaining experience with challenging/responsive behavi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6(10), 623-627.  
<https://doi.org/10.3928/01484834-20170918-08>
- Park, K. M., & Lim, D. Y. (2016).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regarding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2), 47-57.
- Stratton, B., Lea, E., Bramble, M., Eccleston, C., McCall, M., Lucas, P., & Robinson, A. (2015). Residential aged care facility clinical placements for undergraduate paramedic students: An evaluation of the Australian experience. *Australasian Journal of Paramedicine*, 12(2), 1-8.  
<http://dx.doi.org/10.33151/ajp.12.2.144>
- Wolf, A. (2010). Subjectivity in Q methodology.

-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8(2), 55-72.
- Yeom, H. E. (2016). Review of educational strategies to facilitate desirable attitudes toward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561-571.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561>
- Yi, G. J. (2015).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perational performances in South Korea. *Hallym Journal of Aging Studies*, 3(1), 1-25.
- Zhang, S., Liu, Y. H., Zhang, H. F., Meng, L. N., & Liu, P. X. (2016). Determinant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are willingness towards the elderly in China: Attitudes, gratitude and knowledge. *Nurse Education Today*, 43, 28-33.  
<http://dx.doi.org/10.1016/j.nedt.2016.04.021>
- Zverev, Y. (2013). Attitude towards older people among Malawian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Gerontology*, 39, 57 - 66.  
<https://doi.org/10.1080/03601277.2012.660869>

---

## Subjectivity toward Nursing Homes as Perceived by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Q Methodology Study

---

**Ha, Eun 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Lee, Young Mi**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rpose:** Nursing homes are a type of residential care that provide diverse services such as planned activities, convalescent care, skilled nursing and memory care. Nursing homes are good facilities for old people with dementia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ivity toward nursing homes can vary to greater or lesser degr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ubjective attitudes and viewpoints toward nursing hom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Q methodology, which is a research method to study the people's subjectivity, was used. The 40 Q-statements selected from each of 43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the shape of a normal distribution.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QUANL program. **Results:** Three types of subjectivity toward nursing homes emerged: 'Type I, in terms of usage of nursing homes-hesitative perspectives:', 'Type II, in terms of running of nursing homes-progressive perspectives:', and 'Type III, in terms of admission to nursing homes-constructive perspective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three types. The study results will lead to further research.

**Key words :** Nursing students, Nursing homes, Subjectivity